

# 무더위 속 학교 '마스크 수업' 영화관·대형마트 발길도 '뚝'

## 메르스가 바꾼 생활상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 발생하고 광주·전남 지역에도 메르스 공포가 엄습하면서 시민들 일상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등 자택 격리자 등이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나는가 하면, 감염을 우려하는 걱정스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마스크' 쓴 채 수업...마스크 구하기 '전쟁'=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학교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편에 보면 가정 통지문에 '마스크 착용 후 등교'를 주문하는가 하면, 직접 구매한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현재 메르스 감염 등을 우려, 등교중지 처분을 내린 학생 숫자를 유치원생 1명, 초·중·고등학생 4명 등 1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뒤통수 치기

## 온라인 마스크 구입 열풍 쇼핑카드로 되도록 안써

## 회식 줄고 잔 돌리기 자체 감염 막으려 몸조심 역할

울, 비말(飛沫)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방역효과가 뛰어난 'N-95' 마스크의 경우 개당 3000원이 넘는 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온라인상에서는 개당 4500원 이상 고가에 팔리는 진품경도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손님이 몰리는데도, 특성상 마스크도 사용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서 "일을 계속해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극장, 마트 등 발길 '뚝'·회식도 줄어=1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 영화관(광주 16개·

전남 11개)를 찾은 관객은 16만7624명(광주 11만5188명·전남 5만2436명)으로,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달 23일~31일까지 관객(32만703명)에 견줘 무려 47.7%(15만3079명)가 감소했다.

CGV를 비롯, 일부 영화관은 메르스 우려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6일부터 4D 영화관에서 사용되던 물 분사 장비 사용을 중단했다.

광주 서구와 남구 등 대형 마트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연출했고 접촉을 우려,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대신, 가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쇼핑객도 눈에 띄었다.

예전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회식 자리를 줄이고 '술잔 돌리기'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다시 형성되고 있다.

광주에서 자주 혁신도시로 출퇴근한다는 박모(51)씨는 "퇴근 뒤 혼자 머무르는 숙소에 가는 대신, 하루가 멀다고 술자리를 가졌던 직원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 회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광주경찰청, 음주감지기 사용 전면 중단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 3일부터 메르스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한 뒤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해 왔

나, 이날부터 감지기 사용 대신 곧바로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경로가 비말(飛沫·입에서 배출되는 작은 물방울)인 것을 감안한 조치로, 음주 측정기는 1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덜어 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1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라도 사용 직후마다 약품으로 소독하고 운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들이 보는 앞에서 추가 소독을 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학교 휴업 15일 초과면 수업일수 감축 허용

### 교육부, 휴업 기준도 제시

초·중·고등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휴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교육부가 10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와 관련해 휴업일이 15일 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휴업기준으로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미쓰비시重 상대 3차 소송

### 1억5360만원 손해소 제기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3차 소송에 들어갔다.

1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옥(83) 할머니와 고 최정래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 이경자(여·72)씨 등 2명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1억536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본국 헌법과 교사의 말에 속아 당시 13살의 어린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지원,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미쓰비시 측이 애초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근로대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할머니의 경우 지난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했다.

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

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의 경우 지난 2012년 양금덕(84)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김재림(85) 할머니 등 4명이 지난해 추가 소송을 내는 등 모두 11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고법은 오는 24일 양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무진관에서 제2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서 6·10민주항쟁 28주년 기념식

'광주·전남 6월항쟁 기념사업회'(이하 6월항쟁 기념사업회)는 10일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6·10 민주항쟁 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의장 등 내외빈 100명이 참석했다. 1부~3부로 나뉘어 열린 기

념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경과보고·개회사·축사·연대사·현안 보고·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강연회·정기총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6월항쟁 기념사업회는 기념식 직후 '6월항쟁 28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항쟁 기념사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87년 6월항쟁은 그토록 엄연하

던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며 철저히 민주주의 바탕은 우리 사회에 역동성과 창의성을 부여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6월항쟁 기념사업회는 이어 "6월항쟁 28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30주년을 준비하며 5·18 정신과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잃어버린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을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 전남 소방서 없는 지자체 전국 최고

### 22개 시·군 중 10곳 미설치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절반 가까운 10곳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24%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방의 가장 중요한 공익업무인 화재 및 인명구조 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 중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는 전체의 17.9%인 41곳이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 중 절반 가량인 10개(24%)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각 시·군은 인접 기초자치단체 1~2곳을 담당하고 있다. 목포소방서는 무안·신안, 순천소방서는 구

례, 담양소방서는 장성·곡성, 보성소방서는 고흥, 강진소방서는 장흥, 해남소방서는 완도·진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이 전남에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이유는 전일 도지사 시절 소방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방서 한 곳당 신설 비용이 대략 70억 원(지방비 전액) 가량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도가 다른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소방업무 차질을 우려, 매년 소방서 한 곳씩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무안소방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도로서 잡든 음주운전자 '화들짝'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1)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한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북부경찰 소속 순찰차와 경찰관을 친 뒤 1km 가량 도망간 혐의.

○...만취한 박씨는 1차선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출항량 찻는데,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1k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무엇이 정답인가!

##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입장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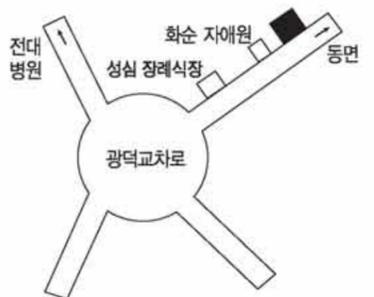
##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